취업난에 창업 내몰린 청년들… 자영업자 수 3년 만에 '반등'

국가데이터처, 8월 비임금근로 조사
전체 자영업자 578만4000명 기록
29세 이하 1년 새 19.4% 급증
취업 어려워 창업한 비중 21.7%
70세 이상 비중 역대 최고 수준



1일 서울 시내의 한 상점에 '임대' 문구가 나붙어 있다. /뉴시스

국내 자영업자 수가 3년 만에 반등했다. 취업난 탓에 창업 대열에 합류했다는 응답이 올해 크게 높아졌다. 특히 29세이하 자영업자는 1년 사이 20%가량 늘어났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국내 전체 자영업자는 578만4000명으로, 지난 2023년(578만4000명)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2024년(574만5000명)과 2025년(567만5000명)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3년 만에 반등한 것.

증가세는 청년층에서 두드러졌다. 15~29세 자영업자 수는 1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7000명(19.4%) 늘었다. 청년층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2000명으로 3000명 증가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3만4000명으로 2만4000명 늘었다.

30대에서도 지난해 65만 명에서 올해 70만 명으로 5만 명 늘었다. 70세이상도 1년 새 2만3000명이 증가했다. 또 전체 자영업자 중 70세이상 비중은 14.6%로, 2007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올해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처는 최근 1년 내 사업을 시작한 신규 자영업자를 상대로 사업시작 동기를 조사했다. 그 결과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21.7%로 지난해 조사(17.9%) 때보다 3.8%p 올랐다.

반면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라고 답한 응답 비중은 70.8%로 3.0%포인트(p) 내렸다. 일자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비율도 높아졌다.

현재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 일자리(사업)를 경험한 경우는 80.7%로 지난해보다 3.0%p 낮아졌다. 일자리 경험이 없는 경우는 19.3%로 3.0%p 올랐다.

신규 자영업자의 최초 사업자금 규모는 ▲500만 원 미만 35.2% ▲500만~2000만 19.8% ▲2000만~5000만 16.8% ▲5000만~1억 17.3% ▲1억~3억 8.6% ▲3억 이상 2.4%였다.

사업자금 500만 원 미만(31.9→35.2%)과 1억~3억(8.0→8.6%), 3억 이상(1.6→2.4%)의 비중은 상승했다. 이에 반해 500만~2000만(22.2→19.8%), 2000만~5000만(18.8→16.8%), 5000만~1억(17.5→17.3%)은 하락했다.

사업자금 조달 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돈(70.3%)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보험회사·상호신용금고(18.9%), 별도 자본 필요 없음(18.5%), 친지 또는 동업자의 자금(6.1%), 타인에게 빌림(4.3%) 순이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돈으로 사업을 조달한 자영업자 비율(68.6→70.3%)은 지난해보다 높아진 반면, 은행·보험회사·상호신용금고 등(21.3→18.9%)에서 자금을 마련한 비율은 떨어졌다. 이들은 사업 시작시 애로사항으로 사업정보·경영노하우 습득(28.4%), 사업자금의 조달(24.1%), 판매선 확보 및 홍보(23.6%), 입지선정·기술개발 및 시설 확보(10.3%) 등을 꼽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김장철 배추·무값 하락에 수매 나선다

농식품부, 배추 1만t·무 3000t 비축
작황 호조에 김장재료 가격 약세
공급과잉 지속 땐 출하정지 검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김장재료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정부가 김장재료의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 이달 배추·무에 대한 수매에 나선다. 예년에 비해 출하량이 증가한 데 따른 대책이다. 또 공급이 급증할 시 출하를 한시적으로 중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주요 김장재료의 출하 상황 및 도매가격 등을 살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김장재료 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가량 낮은 수준이다. 특히 주재료인 배추와 무가 작황 호조의 영향으로 김장성수기(11월 중순~12월 상순) 기간 전년·평년에 비해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의 동시다발적, 다량 공급에 대비해 11월 상순부터 배추 1만 톤(t), 무 3000t을 수매해 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급과잉이 지속될 시 산지 일시 출하정지 등의 추가대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올해는 배추·무 등 주요 품목의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매법인·농협 경제지주 등 관계기관 및 단체가, 김장 붐 조성을 통한 소비확대 유도와 함께 수급 조절·출하자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김장용 가을배추와 무 생산량이 각각 작년과 비교해 각각 18.5%, 11.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배추 1포기의 평균 소비자가는 포기당 3969원으로 전년대비 23.5% 낮았다. 무는 개당 2038원으로 9.2% 내렸고 양파와 대파도 kg당 1890원, 2274원으로 각각 14.9%, 30% 내렸다.

농경연 조사에 따르면 올해 가정에서 김장을 직접 하는 비중은 58.6%로 지난해보다 5.6%포인트(p)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김장배추 수요가 58만3000t으로 9.1%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유럽 원전시장 공략 위한 인증 협력 강화

한수원, TUV 라인란드와 MOU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인 TUV 라인란드(TUV Rheinland)와 손잡고 까다로운 유럽 원자력발전소 시장 공략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수원은 지난 3일 TUV 라인란드와 '유럽 원자력발전소의 디지털 기기 인증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럽 원전에 적용될 핵심 디지털 설비를 유럽의 엄격한 기술 기준에 맞춰 개발·검증하고, 성공적으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원전 시장은 안전 등급 설비의 디지털화가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나, 유럽은 기술 규제와 인허가 요건이 특히 까다롭다.

협약에 따라 한수원은 유럽 원전의 디지털 기기 인증 절차와 관련된 설비 및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TUV 라인란드 코리아는 유럽 인증에 필수적인 인허가 전략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인증 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양 기관은 향후 5년 간 협력 분야를 구체화하고 긴밀한 정보 교류와 실질적인 기술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수원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엄격한 유럽 원전 시장의 기술 규제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한편, 안전 등급 디지털 기기의 인증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향후 유럽 지역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기술적 기반이자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이돈국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은 "세계적인 인증 역량을 갖춘 TU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한수원이 공급할 디지털 설비가 유럽의 엄격한 기술 및 안전 기준을 완벽히 입증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인증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국내 해양수산업 산출액 197조7000억 달해

해수부·OECD, 해양경제 국제 세미나
취업자 77만7000명·부가가치 63조

국내 해양수산업 취업자 수가 77만7000명, 총 산출액은 197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는 63조2000억 원으로 전체 산업 부가가치에 차지하는 비중이 2.8%를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위성계정' 연구 성과와 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63조 원대 부가가치 가운데 해운·항만업의 부가가치가 19조9000억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선박·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이 13조5000억 원,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이 11조7000억 원,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이 합계 10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 위성계정은 작년 12월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받았다. 해운·항만, 조선, 수산업, 해양관광 등 여러 산업의 부가가치, 고용 현황 등을 제공한다. 해수부는 OECD 등과 해양수산 위성계정을 비롯한 해양경제의 측정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달 5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세계와 한국의 해양경제 측정'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열고 해당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 행사는 제20회 세계해양포럼(WOF) 특별 세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함께 마련했다.

OECD는 세계 해양경제에 대한 보고서인 '한눈에 보는 해양경제'를 소개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해양경제는 1995년부터 작년까지 30년간 2.3배 성장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가스公, 폐가전 10톤 수거

자원순환 캠페인 성과 2배↑

한국가스공사가 임직원과 자회사·협력사가 함께 펼친 자원순환 캠페인을 통해 10톤이 넘는 폐가전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4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 '자원순환의 날' 계기 캠페인의 후속 조치로 폐전기·전자제품 수거 실적을 최종 집계한 결과, 총 1만175kg의 폐가전을 수거했다. 이는 지난해 수거량인 4809kg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올해는 사옥과 가정에서 방치되던 폐가전 수거 대상을 자회사와 협력사까지 대폭 확대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냈다. 앞서 가스공사는 E-순환거버넌스 협약을 통해 수거 절차를 개선하고 상시 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2025년 ESG 자원순환 어워즈'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남부발전, 최대 국산 터빈 해상풍력 추진

영광 야월해상풍력 PF 금융약정 체결

한국남부발전이 국산 터빈을 적용한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 기반을 다졌다.

남부발전은 지난달 27일 '영광 야월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 영광군 해상에 104MW급 단지를 건설·운영하는 이번 사업은 국내에서 개발한 8MW급 대형 해상풍력 터빈 13기를 도입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산 터빈 적용 해상풍력 프로젝트다. 2022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시행 이후 국산 터빈을 적용해 낙찰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금융약정에는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이 금융주선사로 참여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펀드가 주주사로 합류했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및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자사업에 동시 선정되며 공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확보했다.

남부발전은 향후 사업의 운영 및 유지보수(O&M)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최초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인력을 해상풍력 분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계약서내에 명문화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기조에 선도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금융약정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과 국민성장펀드를 함께 활용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